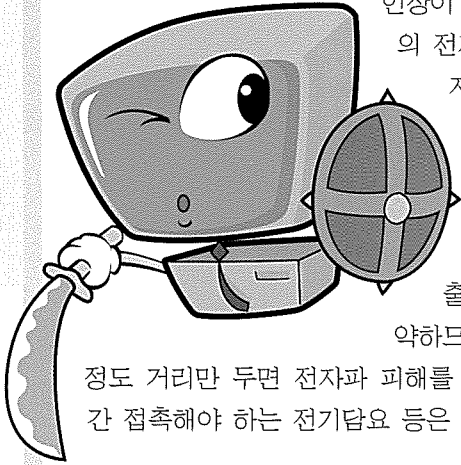


## 잘못된 건강상식

### 유해전자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방안에 선인장을 놓는 것이 좋다



한때 선인장이 전자파를 흡수한다고 잘못 알려져 시판 중인 선인장이 동이 나는 웃지 못할 사태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선인장의 전자파 흡수효과는 사실무근이다. 백혈병 발생률 증가 등 전자파의 인체피해작용 역시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사실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만 최근 전자파가 인체에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있다면 전자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전자파의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령이라 하겠다. 무선호출기나 위성안테나, 가정용 무선전화기는 전자파 발생이 미약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TV나 컴퓨터모니터 등은 60cm 정도 거리만 두면 전자파 피해를 무시해도 좋을만큼 약화된다. 다만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접촉해야 하는 전기담요 등은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첨단의료장비인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최근 일부 병원에서 CT나 MRI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고가의 건강검진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증상의 건강한 보통사람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가장비까지 동원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CT의 경우 불필요한 방사선에 조사되거나 수십만원 이상 호가하는 검사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검진은 얼마나 비싼 첨단장비가 동원되느냐 하는 하드웨어적 문제보다 의사의 자문 하에 필요한 검사만을 얼마나 실속있게 받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종합검진의 효율극대화를 위해선 장비와 검사일변도의 획일적 검진보다 가까운 주치의와 상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검사항목만을 골라 검진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하겠다.



(자료제공 :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건강증진센터)